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파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리는 근대 세계의 심장입니다.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하비가

그의 책에서 감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파리는 근대의 수도입니다.

파리가 근대의 수도로 기능하기 위한
사상적 열쇠를 제공한 이는

근대 이전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허물고

새로운 근대의 세계관을 정초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또 근대 수학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철학의 아버지, 수학의 아버지
그리고 데카르트는 근대 과학의

길을 닦은 이탈리아의 갈릴레오와
영국의 뉴턴과 함께

근대 과학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의 사후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데카르트의 후예들은

18C 파리를 계몽사상의
산실로 만들었습니다.

계몽사상은 구질서의 종말과
새 질서의 탄생을 선언한

역사적인 대변혁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제공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파리에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파리**5** 대학은 지금 데카르트 파리
대학이라고 불립니다.

한때 데카르트 학문의 적이었던
옛 학문의 중심지 파리대학은

데카르트라는 이름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죠.

파리 대학들은 옛 파리의 중심,
시테에서 남쪽

그러니까 센 강 남쪽에
몰려있습니다.

연인의 다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퐁 네프 다리를 건너든

아니면 유명 화가들이 앞다투어서
화쪽에 담은 생미셸 다리를 건너든

아니면 카미유와 사르트르가 즐겨
찾았던 보행자 전용의 다리

퐁데자르로 건너든 센 강 남단 지역은
학문과 예술이 숨 쉬는 곳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름을 딴 데카르트 거리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과학을 선도한
에콜 폴리테크니크도

바로 데카르트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전기를 보면
도대체 이 시기에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때가 두 번 나옵니다.

전기의 작가들은
이 시기에 데카르트가

파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연대로 보면 **1616**년에서
1618년 사이

그리고 **1625**년에서
1628년 사이입니다.

첫 번째 파리 시대는 데카르트가
라 플레쉬 학교를 졸업하고

또 푸와티에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마친 직후입니다.

라 플레쉬의 기숙학교는 데카르트가
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학교죠.

마치 자서전처럼 **1**인칭
시점으로 쓰인

그의 대표작 <방법서설>을 보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라 플레쉬에서 이 세상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학교는 군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몽테뉴 서재에
못지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백가쟁명

모두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대 학문을 모두 섭렵한
데카르트의 생각과

그보다 한 세기 앞서서
모든 책을 섭렵한

몽테뉴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성년에
이르러 선생들로부터 벗어나서

책으로부터 배우는 학문은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또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말고는

이제 어떠한 학문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나머지를
여행에 사용해서 이곳저곳

궁전과 군대를 보았고,
온갖 기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방문하는 등
갖가지 경험을 거듭하여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다."

데카르트의 여행의 시작은
파리였습니다.

파리를 시작으로 데카르트는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또 데카르트가 명성을 얻은 해에는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갔으니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데카르트 삶의 궤적은

그야말로 그랜드 투어,
그랑 뿌르였던 셈입니다.

특히 그는 네덜란드에서
20년 넘도록 있었는데

10년 전 제가
<철학 도시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쓸 때 네덜란드에서
이사 횟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모두 18번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20번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암스테르담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의 집 근처에는

데카르트가 살았다는
플레이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즈음 나는 독일에 있었다.
거기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던

전쟁에 마음이 끌려
그곳으로 간 것이다.

황제의 대관식을 본 뒤
군대로 돌아가다가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종일 난로 방에 혼자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맨 처음 생각났던
일 가운데 하나는

많은 부분을 짜 맞추어지고
많은 기술자의 손에서

완성된 작품보다는 혼자서 완성한
작품이 더 완전하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완성한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옛 성벽 등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건물보다 당연히 더 아름답고
질서정연할 것이다."

이 인용 대목은 <방법서설> 2부
첫 대목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유명한 대목인데 후에
데카르트 전기 작가 바이에는

난로방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된 날짜를

1619년 11월 10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독일 다뉴브강
유역에 있는 도시

울름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로 전해집니다.

바이에에 따르면 지금은
실전된 데카르트 수기에

'1619년 11월 10일
나는 영감에 넘쳐서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카르트가
학문에서는

공동 작업보다는 개인 작업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이컨이 학문의 공동 연구를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죠.

이러한 인식 차는 근대 철학을
양분하는 영국 경험주의와

유럽 합리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동 연구를
중시하고

한쪽에서는 개인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는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철학의 바통이 한 인물에서
다음 인물로

주자에서 주자로
전달됩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죠. 그런데
합리주의는 하나하나의 철학이 마치

파리 시테 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처럼 독립적입니다.

근대 합리론 철학자로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를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만의
건물을 짓거든요.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 난로방의 체험으로

그 이전의 철학을 다
부수어 버리고

새로운 철학의 토대를 놓자는
결심을 했다는 점입니다.

데카르트는 비장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가자,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쓰러지는 것은 피하겠지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토대 위에서 새 건축물을
쌓겠다는 그의 기획은

4가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명증성의 규칙에서 나옵니다.

제가 속도를 낮추어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철학이 바로 이 대목에서

출발하는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증성의 규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명백한 증거로서 참(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참으로
인정하지 말 것.

바꾸어 말해서 주의 깊게
속단과 편견을 피할 것.

그리고 내가 의심할 어떠한
이유도 가지 않을 만큼

명석하고 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내 판단 속에
들여놓지 말 것."

이 규칙은 몽테뉴에게서
살짝 언급된

회의주의적 사유를 들고 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몽테뉴 사유의 특징은
온건한 회의주의거든요.

도시마다 다른 생활방식에서
몽테뉴는 어떤 태도를 보였죠?

문화적 차이를 존중했습니다.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상대성에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태도도 옳고
저런 삶의 태도도 옳고

또 여기서 더 한발 나가서
삶의 도덕적 기준은 없다는

상대주의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피론주의라고 불리는
몽테뉴가 소개하고

또 호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한 사상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서의 질성을
회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훌륭한 철학자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관찰하니 다 다르다는 것이
몽테뉴의 관찰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찰은
몽테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피론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피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론주의에서는 진리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한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모두 도그마 곧 '독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진리는 없나요?

피론주의는 진리가 없다는 주장도
독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피론주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판단 중지입니다.

"어떤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도 마라.

그것을 괄호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고대 철학은 몽테뉴 취향에
딱 맞았을 겁니다.

몽테뉴 철학이 유행하면서
온건한 회의주의인 피론주의도

함께 유행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데카르트도
겪은 과정이었죠?

모든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모든 주장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다 논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의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데카르트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흔히 코기토 명제라고 표현되는
이 명제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는
그 무엇에서 출발하는 명제입니다.

그것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자, 기왕 시작했으니 좀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가 봅시다.

철학 사이에서는 이 과정을 흔히
방법론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방법론적 회의는
사유 실험입니다.

그것은 회의의 끝장, 갈 때까지
가보자는 회의의 진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회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손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인다고요? 만져진다고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도저히 회의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러한
물질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꿈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치 꿈을 꾸게 되면
실제와 같이

생생한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은 방법론적 회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수의 '나비의 꿈'을
연상하게 됩니다.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루에 앉아서 나비를 보면서
잠깐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경로를 다 겪게 되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늙고 병들고 한 평생을 다 살았는데

문득 깨어나 보니 나비가 겨우
저만큼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데카르트는
이것은 감각을 버리고

그다음에 도대체 회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 수학. ' $2+3=5$ '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도 부정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틀림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마저 버립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악령,

곧 악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들입니다.

사실은 $2+3$ 은 4인데,
5라고 악마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 진리도 방법론적 회의
실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설정 같죠?

가상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입력한

<매트릭스>의 세계는 사실 데카르트
철학을 모태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 또는 악령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회의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된 거죠.
코기토 명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은 더 이상 회의라
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악령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이는 대상이
생각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기토 명제입니다.

자, 이제 코기토 명제에 의해서
출발점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베이컨을 살펴볼 적에
연역의 단점은

바로 대전제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전제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전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방법론적 회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명석판명한 코기토 명제를 통해서
그 지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을 데카르트는 자신만만하게
철학의 제1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철학의 원리는 그 이전의
철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건축물의 토대입니다.

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하는 것이
제1원리로 정당성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논증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다음 논증은 물질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번 차시는 도시 이야기보다는
철학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요.

데카르트는 사실
파리보다는

네덜란드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네덜란드
철학 투어로 건너가고

파리 투어는 빛의 세계로 불리는
18C에 다시 빛의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대학 거리
근처에 있는

근사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실 걸 기대합니다.